

배울 것 많아 행복한 순천

평생학습도시 조성 박차
시민대학 업그레이드 168강좌 운영
행복학습센터 21강좌 530명 참여
한글작문교실 첫 졸업생 배출도

순천시가 생활밀착형 평생학습 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순천시는 지난 2003년 평생학습 도시로 지정된 이후 제1호 어린이 도서관인 기적의 도서관 개관, 평생학습 조직신설, 평생학습 조례제정, 국제화교육특구 지정 등을 추진 중이다. 평생학습 도시로 명성과 신 교육도시로 위상을 갖춰나가기 위해 '시민 1평생학습'을 실현하기 위한 생활밀착형 평생학습에 주력해 나갈 계획이다.



한글작문교실



행복학습센터

◇시민대학 활성화 위한 다양한 강좌 개설=순천시민대학은 지난 2008년 개강 이후 4만여 명의 수강생들이 수료하는 등 시민들을 위한 강좌로 자리잡고 있다. 특히 올해는 시민대학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 168강좌의 강사를 새로 모집했다. 올해 상반기에 운영되는 시민대학 모집인원은 총 3927명이며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생태체험 및 MICE 산업 전문가 프로그램을 강화했다.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주택관리사, 미술심리치료사, 해금,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 신규 과목을 개설했으며 자격증 과정을 확대 편성에 취업과 창업 준비 지원과 직장인들의 여가시간 활용을 위한 야간 및 주말 프로그램도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교육기간은 3월 2일부터 4개월, 8개월, 10개월 과정으로 나뉘어 이뤄진다. 순천시민대학은 생활기능대학, 인문교양대학, 문화예술대학, 사회경영대학, 여성문화대학 등 총 168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시민대학은 지속적인 평가와 분석으로 시민의 의견을 반영해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시민이 직접 기획·운영하는 행복학습센터 개설=시는 지역의 유휴시설 발굴과 주민의 다양한 아이디어 제공으로 시민이 직접 평생학습기획, 운영, 교육감사까지 할 수 있는 새로운 학습형태인 행복학습센터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현재 7개, 21강좌 530여 명이 직접 참여해 교육 중이다. 또 청·장년층의 거주율이 높은 신대지구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실질적인 평생학습을 전파할 수 있도록 소규모의 그룹으로 평생학습을 통한 시민들의 만남을 연결하는 'At Home'을 신대지구에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해 행복학습센터를 삼산동, 왕조2동, 중앙동, 상사동 등 7개소에서 운영했다.

◇한글 못 읽는 시민 없는 도시 조성=순천시는 한글

모르는 시민이 없는 행복도시를 위해 지난 2004년부터 한글작문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한글작문교실 883개소에서 1만900명이 교육을 받았으며 현재 75개소 921명이 수강하고 있다.

특히 2013년 전라남도 교육청 초등학력인정 과정을 신청해 1개반 25명을 대상으로 운영해 올해 2월까지 3단계 교육 과정을 이수해 처음으로 22명의 첫 졸업생을 배출했다.

순천시는 23일 순천문화예술회관에서 한글작문교실 수료식을 열고 이들에게 초등학력 졸업장을 수여했다.

순천시는 지난 2013년 전남도교육청의 초등학력 인정 과정 1개 반을 운영해 2016년 2월까지 3년간 3단계 교육 과정을 이수한 22명이 올해 처음으로 초등학력 졸업장을 받게 됐다.

졸업생 22명 대부분은 고령과 장애를 극복한 열정이 가득한 할머니 학생들이다. 이들의 평균 연령은 68세에 이르러, 이 중 최고령자는 84세로 2014년 KBS 도전골든벨-성인문해학습편의 골든벨 주인공이기도 한 권정자씨다.

권씨는 "글을 몰라서 살아오던 동안 서러움을 가슴 속에 묻고 살았는데, 한글을 깨우쳐 손자들에게 편지도 쓸 수 있어 행복하다"고 말했다.

순천시 관계자는 "앞으로 초등학력 인정 과정을 확대 운영해 배움의 열정이 있는 어르신에게 학업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라며 "오는 2018년 전국에서 최초로 한글을 모르는 시민이 없는 도시를 선포해 시민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고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순천시는 2004년부터 한글작문교실을 운영해 2015년까지 883곳에서 1만900명을 교육했으며, 현재 한글작문교실 75곳에서 921명이 수강하고 있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순천은 4월부터 문화예술에 빠진다

순천시는 "제4회 향관에 즐기는 아고라 순천" 문화예술 공연을 오는 4월부터 10월까지 조례호수공원을 비롯한 순천시 전역에서 다양하게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향관에 즐기는 아고라 순천'은 '함께', '같이'를 뜻하는 전라도 사투리이며, '향관에 즐기는 아고라 순천'은 순천시가 2013년부터 시작한 문화예술 공연 이름이다. '아고라순천 추진위원회'는 공연 준비를 위해 지난 22일 올해 운영방향을

'향관에 즐기는 아고라 순천' 10월까지 다양한 공연 추진

논의했으며, 24일에는 평생학습문화센터 다목적실에서 '아고라 순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문화예술행사 참여자와 관계자, 시민이 참여해 그동안 시작한 문화예술 공연 이름과 문화예술 공연의 개선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누게 된다.

'아고라 순천' 설명회를 시작으로 오는 3월 '아고라 순천' 공연팀을 공모로 확정하면 4월부터 10월까지 문화예술 공연을 펼치게 된다.

순천시 관계자는 "올해는 시민이 함께 만들고 향유하는 문화공연으로 장소와 계절, 연령별 특성을 고려한 공연을 기획했다"며 "특히 노래와 춤, 국악 이외에도 마술, 설치미술, 시민 체험 공연 등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순천=박선천기자 psc@

'문화가 있는 날' 예술영화 무료 감상하세요

순천시영상미디어센터

24~26일 3편 상영

순천시영상미디어센터, 문화가 있는 날 예술영화로 풍성

순천시영상미디어센터 두드림은 23일 "문화가 있는 날(매일 마지막주 수요일) 2월 상영작으로 예술영화 3편을 순천시 청소년수련관 3층 영화관에서 무료로 상영한다"고 밝혔다.

24일 오후 7시에 상영하는 첫 번째 영화 '서정 포 수가맨'은 선댄스영화제 관객상 심사위원 대상을 수상한 음악다큐멘터리로, 제8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 개막작이기도 하다. 미국에서는 아무도 알지 않는 비운의 가수지만 남아공에서는 엘비스 프레슬리보다 유명한 슈퍼스타 수가맨을 찾는 동화같은 실화를 그렸다. 25일 오후 18시 30분에 상영하는 '바닷마



을 다이어리'는 일본에서 만화대상을 받은 동명의 만화를 원작으로 한 영화다.

마지막으로 26일 오후 7시에 상영되는 '리스본행 야간열차'는 독일에서만 200만부가 넘게 팔리고 30개국에서 출간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원작이다. 칸영화제 황금종려상을 두 번이나 거머쥔 빌 에거스트 감독과 마성적 매력의 연기파 배우인 제레미 아이언스의 만남으로 화제를 모았으며, 우연히 한 권의 책과 티켓을 발견한 뒤 진정한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을 담고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이번에 상영되는 영화 3편은 봄을 기다리는 시민의 마음에 따뜻함을 불어넣어 줄 명작"이라며 "많은 시민들의 관람 하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영화상영과 관련한 내용은 홈페이지(www.scmedia.or.kr) 또는 순천시 영상미디어센터(061-811-0218)로 문의하면 된다.

/순천=박선천기자 psc@

순천로컬푸드 오늘 공식 출범

주주 1089명 참여 창립총회·비전선포

순천로컬푸드(주)가 1089명의 주주가 참여한 민·관 공동 출자 법인으로 공식 출범한다.

순천로컬푸드(주)는 24일 문화건강센터 다목적실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법인 정관 승인, 임원 선출, 회사 비전을 선포한다.

순천로컬푸드는 순천시 로컬푸드 사업의 실질적인 운영 주체로 직매장 운영, 직거래 장터 개설, 생산농가 팜투어 등 다양한 순천형 로컬푸드사업을 전담하게 된다.

순천시는 지난 1월 생산자·소비자·시민사회단체 등 1천89명의 주주를 모집해 7억2600만원의 자본금을 확보하고 민·관 협력 법인을 설립했다.

순천시 관계자는 "민관 협력 구축으로 탄탄한 기반을 마련한 순천로컬푸드가 지역 경제를 살리고 시민의 안전한 밥상을 지키는 지역공동체 운동의 성공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순천=박선천기자 psc@

올해 '책 읽는 학교사업' 공모

40개교로 확대...29일까지 신청 접수

순천시가 범시민 책 읽기 운동 중 하나로 책 읽는 학교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23일 순천시에 따르면 관내 초·중·고등학교 77개교 중 40개교를 대상으로 책 읽는 학교 사업을 운영한다. 이는 전년보다 11개교가 늘어난 것이다. 책 읽는 학교 사업은 학생의 독서습관이 평생 습관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책으로, 지난해 사업 추진 결과 학교 독서환경 조성교 교사·학부모·학생들이 책 읽기에 대한 동기부여를 받는 등 효과가 높았다는 게 순천시의 설명이다.

시는 올해 책 읽는 학교 사업계획을 안내하고 오는 29일까지 참여 신청서를 접수한다.

선정된 학교에는 교사 및 학생 독서동아리 운영에 따른 도서 지원과 학부모 독서교육 감사지원, 학생들이 만나기를 희망하는 작가 초청강연회 개최, 원시리 원북(one city one book) 독서릴레이 도서를 지원할 계획이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이동식 한옥 사랑채

사랑채, 힐링하우스, 한옥펜션, 이동식주택, 도시옥상 휴식공간이나 민박, 농가주택, 찜질방, 이동식 화장실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가능

전통한옥을 집묵한 원목위주의 친환경 자재와 철구조로 이루어진 내진설계 내화판넬을 이용한 우수한 단열효과 및 화재를 미연에 방지 할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이동식 시스템한옥

단열걱정 NO! 소음걱정 NO! 화재걱정 NO!

내부 한옥은 특히 단열성 서까래 및 부연 화장실

기본옵션 | 화장실, 싱크대, 신발장, 바닥난방

www.뫼마루.com 이동식 한옥 전문기업

조은하우징 (주) 061-461-1800 H. 010-3631-0372

외국인들에게 더 사랑받는 가장 제주다운 리조트

환상의 섬 제주주의 아름다운 자연속에서 힐링하는곳!

가족, 연인, 기업워크숍, 수학여행단 등 예약 064-739-8899

제주아이브 제주아이브 1982-24 (19일동 25~4)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신북로 1982-24 (19일동 25~4)

돌나루 독채형객실	편안드레스룸을 직접 수입하여 정성껏시공한 프라이빗한 돌나루 독채형객실
레지던스형객실	바다전망과 2인스파를 보유한 레스던스형 리조트 타입의 객실
골프투어 최적지	레이크힐스cc, 우리골프, 롯데스카이힐스, 링크스cc, 4개골프장 5분거리, 골프투어 최적지, 차량이동시간임
한라산등반 최적지	
소문의 권리	중문관광단지 10분, 서귀포 시가지, 이마트&홈플러스 15분(단, 차량이동시간임)
알리바이먼트	주중 30%, 주말 20% 할인(평일, 성수기, 혼성수기, 연휴기간 제외)
렌트가 90% 할인	별과 15평 돌나루원룸 1박 + kb or YF소나타 24시간 78,900원(비수기 주중 기준)
단체수요 시설완비	300평 단위의 기업단체 및 수학여행단, MICE가능, 50인 수용 가능한 최신 워크숍을 완비, 150인 수요가 가능한 아이브를 완비, 초·중·석식가능